

## Chapter 1. 호세아 2.

### ❖ 본문: 호세아 2 장 2 절 -3 장 5 절

#### ➤ 들어가기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 1 장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후, 3 명의 음란한 자녀를 얻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2 장과 3 장은 남편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의 방탕함을 책망하면서, 이를 빗대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가정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진실로 사랑하며 회복시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더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 ➤ 참고: 지난 시간 고민한 신학적 주제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선지자’에 대한 견해?

##### A. 논란 1. 하나님 = 거룩하고 선하신 분!

⇒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 =>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

⇒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심!!

##### B. 논란 2.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창녀)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

⇒ 따라서 이것은 선지자의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일! (‘너 같은 자가 어찌 선지자인가?’ 비난!)

##### C. 그럼 우리는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①. Jerome, Calvin, Keil 등의 신학자는 호세아의 결혼은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

=>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부도덕한 명령을 하실 수 없다고 주장!

②. 그러나 개혁주의/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음!

=> 그 근거는 a. 성경이 고멜을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

b. 3 장 1-2 절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실제적 사건임을 시사함!

③.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함!

=> 우선 만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한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일!

=>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고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는 분도 아니심!

=>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시는 분!!

=>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1. 고멜의 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2-13 절)

1) 우선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어머니 고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나요? (2 절)

- ①. ‘너희 어머니와 \_\_\_\_\_하고 \_\_\_\_\_하라!’ +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 ‘논쟁’하다는 말의 히/원 ‘리브’는, ‘고발하다’, ‘다투다’, ‘따지다’, ‘설득하다’의 의미!
  - 곧 왜 어머니 고멜을 더 이상 아내로 대할 수 없고, 자신이 그의 남편이 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따지고 파악하라고 명령!

②. 그러면서 결혼생활이 불가능한 원인은 고멜의 음란한 생활 때문임으로, 즉시 음란한 생활을 멈추고 제거하라고 명령!!

- 참고로 이제부터 호세아를 통해 선포되는 고멜을 빗댄 모든 말씀은 다 당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임을 생각해야 함!
  - 곧 고멜에게 ‘음란한 생활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즉시 제거하라는 명령!!

2) 그럼 고멜이(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호세아는 선언했나요? (3-4 절)

- ①. 3 절: ‘…,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 + ‘광야 같이,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
  - 고멜을 향한 1 차적 의미:
    - => 고멜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고 ‘벌거벗겨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원래의 고통 받던 상태로 돌려보내겠다는 선언!
  -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 의미:
    - => 3 절의 ‘그 나던 날’ =>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를 가리킨 말!
    - => 곧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 목말라 죽을 것 같던 그때의 고통 당하던 시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②. 4 절: 저들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

3) 그런데 이때 고멜(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했나요? (5 절)

-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
  - => Why?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줄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
- 곧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찾은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찾고, 저들의 우상을 찾았다는 것!!
- 특히 저들은 책망을 들으면서도, 다른 남자가(우상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하였음!!

4)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나요? (6-7 절)

- ‘가시와 담’으로 우상을 찾고 이방나라를 의지하는 저들의 길을 막으실 것이라 선포하심!  
=> 곧 ‘가시와 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고난의 가시요, 고통의 담인 것!
- 그럼 이 고난의 가시와 고통의 담을 경험한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했나요? (7 절)  
=> 결국 나의 도움은 본 남편(하나님)뿐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
- 참고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결코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님!  
=>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의 가시, 고통의 담’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심을 깨닫고, 고난의 가시와 고통의 담을 경험할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자!

5)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8-13 절)

- 8 절: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 = 내가 준 것! = But!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듦!
- 그럼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 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도로 찾으실 것! (9 절: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양털과 삼을 찾을 것)
- ②. 네가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실 것! (10 절)
- ③.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패하실 것! (11 절)  
- 11 절에 언급된 모든 날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을 의미!
- ④.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준 것’이라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수풀이 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 (12 절)  
- 참고로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상징!
- 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세월만큼 징계를 받게 하실 것! (13 절)

## 2. 다시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14-23 절)

1)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기 위해 어디로 데려 가신다 하셨나요?\_\_\_\_(14 절)

- 특별히 14 절, ‘말로 위로하신다’는 말은 히/원 ‘디바르티 알리바’라는 말로, ‘저들의 마음에 말하신다’는 의미!
- 곧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친 들’ 곧 광야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환경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마음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

2) 그럼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①.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될 것! (15 절)
- ②.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을 찾지 않을 것! (16-17 절)
- ③.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것! (18 절)

=>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 참고로 이사야 11 장 8 절, '그 날이 되면 젖 먹는 아이,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게 될 것!' 이라 표현!!

=> 학자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마지막 날을 상징한 것이라 해석!.

- ④.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혼인관계가 회복될 것! (19-20 절)
- ⑤. 땅과 하늘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회복될 것! (21-22 절)
- ⑥.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로암미'는 '암미'로 회복될 것! (23 절)
  - '로' = '결코~아니다'는 뜻!
  - '로루하마' = 결코 '은총/동정/공홀'을 배풀지 않겠다'는 뜻!
  - '로암미' =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

3.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2)에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3 장)

1)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 1 절! => '...,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 참고로 당시 건포도 과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올려지던 제사 음식이었음.

- 특별히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도 깨닫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진실로 사랑해 줄 것을 명령하셨음!

2)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2-3 절)

- 여기서 2 가지를 주목!!

- ①. 2 절 => 호세아는 은 15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사서 데리고 왔다는 것!!  
=> 참고로 당시 호세아가 지불한 금액은 일반 노동자가 4-5 개월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 또한 이 금액은 여중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함!  
=> 어떤 학자는 호세아가 지불한 이 비용은 남편을 버리고 범죄한 고멜의 낮아진 신분과 노예적인 생활 상태를 암시한 것이라 해석! +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

②. 3 절 =>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부탁과 사랑의 다짐!!

=> a. 첫째, 정숙한 여인이 되어줄 것!

b. 둘째, 고멜이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될 때까지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

c. 셋째, 그때까지 고멜과 잠자리도 갖지 않고 기다려 줄 것!

=>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다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의미한 것!

3) 이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4-5 절)

①. 4 절, ‘..., 많은 날 동안 왕과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

=>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 당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상숭배도 못하게 될 것을 의미!

=> 이 예언은 B.C. 722 년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포로생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

②. 5 절, 이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

=> 포로기가 끝나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왕 다윗’ ->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 (‘히/원’=‘선하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나눔